



캘리그래피 :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 悔改의 實踐 (회개의 실천)

사순 제3주일

제 1 독서 탈출기 3,1~8ㄱ.13~15

화 답 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 (◎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2.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3.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4.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0,1~6.10~12

복음 환호송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복 음 루카 13,1~9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성서교육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벽을 뚫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두뚜두 뚜두뚜두” 그제서야 오늘 누수 공사가 있는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공교롭게 미사 시간과 겹친 것입니다. “뚜두뚜두 뚜두뚜두” 끊이지 않는 굉음에 미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화를 내고, 여건이 맞지 않다고 단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질 수 있나? 더 미사에 집중하고 더 정성스럽게 노력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그렇습니다. 주위의 소란스러운 것은 한낱 아주 작은 핑곤킨거리이고 아주 작은 분심 거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합니

다. 그 가운데에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들도 있지요. 되돌아보면, 성소의 위기는 나의 내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시작된 위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배신과 좌절, 포기의 생각은 그렇게 외부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마음을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창세기 18장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려는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여섯 번이나 거듭 청합니다.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신 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한 것이 마흔다섯, 마흔, 서른, 스물 그리고 열 명까지 무례할 정도로 거듭 그 도시들의 구원을 위해 빙니다. 오늘 복음의 전반부는 회개 아니면 멸망이라는 조건적 결말

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 줍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희망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 시기는 회개 아니면 멸망이라는 이중 구조를 넘어서, 삼 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해서 누가 봐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앙상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주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열정과 희망에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순도
라이문도 신부
가톨릭성서사도직



하고 싶은 일 못할 때는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짐승의 입김으로 몸을 녹이셨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참아보겠습니다



글. 정재분 아가다 동시인(대천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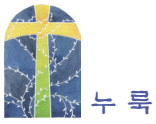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3.25(월)~26(화)
권순도 신부(가톨릭성서사도직)
3.27(수)~30(토)
김재현 신부(삼계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김현지 리나
3.26(화) <2018 새 신부님 특집>
출연 : 고동균 안젤로(정관 보좌),
김무 헨리코(월평 보좌),
신동근 사도요한(우동 보좌),
김상준 베네딕토(남천 제2보좌),
전재경 요셉(화평 보좌),
이근희 다미아노(서대신 보좌),
최윤호 로마노(사직 보좌)



유난히 먼 나라였다. 시간도 거리도 비용도 결정하기에 쉬운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느님 축제 속으로 나를 밀었다. 몇 번의 경유를 거쳐 파나마로 향하는 기내엔 순례객과 신부님, 주교님, 수녀님들로 가득했다. 그렇다! 우린 지금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착륙과 동시에 기내엔 환호와 박수가 가득했고, 그 길로 상투아리아 성당을 중심으로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본대회 첫날에 개막 미사를 하러 가는 길은 기쁨으로 시끌시끌했다. 휘날리는 각국의 깃발들이 내 마음에 에워싸고 하느님이 나를 재촉하여 부르신다는 느낌에 거친 땅바닥은 구름과 같았다. 중남미식 미사는 우리와 다르게 축제 분위기였다. 미사가 이렇게 즐겁다니! 나 역시 춤추고 박수치며 하늘에 내 마음을 올려 보내었다. 남은 날 동안 염수정 추기경님과 정순택 주교님의 교리교

육과 매일미사가 있었다. 한국 교회 큰 어른들의 마음을 연 강의로 한국 교회가 우릴 응원하는 느낌을 받았기에 힘과 용기가 생겼다. 강의 동안 청년들의 고민을 성경과 교리를 통해 해석하고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과달루페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통해 성모님 발현이 그저 기적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를 세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매일 상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작은 어둠들도 다시 빛으로 밝힘으로써 하느님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톨릭 청년으로서 큰 위로도 받았다. 교황님과 함께한 십자가의 길, 성시간을 통해선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는데, ‘작은 모퉁이들의 기도’는 성모님 간구를 통해 십자가에 바쳐져,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세상을 선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도구였

다. WYD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파티마와 아빌라 순례를 했다. 특히 파티마에서 촛불행진과 성체조배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 성모님의 기다림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희망을 지녀야 하고, 세상의 공식대로 주님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청년 세대는 무신론적 사고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 살아감은 외롭지만 내가 가는 길 끝에 계신 주님의 진리를 믿기에 난 자유롭다.

이제 난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에게 다가가고 주님을 모르는 청년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 삶은 이미 두렵지 않다. 어차피 모두의 삶이 각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다면 하느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더 신나기에.

■ 한 그 린 미카엘라
개금성당



『왕국의 비밀』

■ 미카 월터리 / 성찬성, 권혜경 옮김 ■ 바오로딸출판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원기를 보내는 동안 지원장 수녀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씀 중 하나다. 매일 주어지는 성체조배 시간조차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나였기에 수녀님의 이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함께 입회한 동기 자매들은 수녀님의 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내 안에서는 묘한 질투심과 함께 조바심이 났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왕국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지만 책장이 넘어갈수록 어느새 내가 주인공 마르쿠스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난 로마인 마르쿠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호기

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들-마리아 막달레나, 라자로와 그의 동생들, 제자들, 자케오 등-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지원장 수녀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의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었구나.’ 이제야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매일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나의 무의식은 그분을 저 멀리 안드로메다의 어느 별나라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십여 년 전이지만 지금도 그때를 돌아보면 손끝이 찌릿하다. 책 한 권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 『왕국의 비밀』은 이를 위한 좋은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다.

■ 전 로 사 로사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 그룹채팅 (3) 🔍 ☰

2019년 3월 23일

바오로

야, 베드로~ 지난번에 얘기한 단식규정 틀렸더라. 만 21세가 아니라 만 18세가 맞았던데..

잉? 잠시만.. 인터넷으로 가톨릭 대사전 검색한 건데...

신부님께 여쭙보자 ㅋㅋ

베드로님이 신부님을 초대했습니다.

신부님~ 단식 규정을 찾아봤는데 만 21세라고 나와있던데.. 바오로가 만 18세라고 하는데요??

이 규정이 왜 틀려요?

신부님

아, 예전에는 만 21세부터라고 했는데, 1983년 개정된 교회법전부터 성년의 나이를 만 18세로 정의하고 있어서 그렇다.

예..그럼 단식은 어른이 되면서부터 지켜야 할 규정인 거네요.

바오로

금육보다 좀 더 센거네.

신부님

우리 민법도 2011년도에 성년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했는데, 다시 만 18세로 낮추려고 한다지.

그래서 단식은 내가 어른이 다 싶으면 지키고, 아직 아이 다 싶으면 안 지켜도 되고 ^^

단식에 그런 뜻이...

바오로

전 올해 18인데, 단식 못했는데요. 몰랐으니까 통치고 성금요일엔 꼭 하겠습니다.

신부님

단식뿐 아니라 어른스러운 신앙생활도 ^^

우리는 교회로부터 다양한 부르심을 받는다. 그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각자의 소명이기에 '예'라고 순명(순명)으로 응답한다.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나에게 '성소'를 위한 기도가 소명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성소자들을 많이 달라는 기도를 항시 잊지 않고 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커가면서 나는 '성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사를 하면 제일 먼저 본당의 성소분과를 찾았고 성소후원회일을 하면서 신학생들을 돌보고 본당의 성소자들을 찾는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한 사제를 잃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에서 '사제들의 성화와 성소 증가'를 위한 미사가 있음을 알았다. 나는 매월 셋째 월요일이면 순교자 성당을 찾아가 미사를 드렸다.

그리고 목주의 고리기도를 봉헌하는데 한사람이 한 단씩 바치는 목주는 15명이 한 조가 되어 매일 15단씩 봉헌했다. 조마다 150송이로 만든 장미 화환을 날마다 성모



님 머리 위에 얹어 드렸고 회원 수는 날로 늘어 어느새 조가 서른개가 넘었다. 또 매년 사제서품식을

마치고 나면 새 사제와 함께 축하 미사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었고, 일 년 동안은 초립동이 새 사제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도 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르면서 고리기도의 조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우리 조만 남게 되었다. 현시대에 필요한 또 하나의 소명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한 기도이고, 이 또한 성모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목주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세상이다. 사제와 수도자들이 가야 할 성덕의 길은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때이다. 비록 주님께서 성소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지 않으면 그 빛은 세상 속으로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셋째 월요일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성소국장 신부님과 새 사제 중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다. 다행히 함께 기도하고 미사 드리는 신자들의 수가 다시 많이 늘고 있다. 또 하나의 소명을 받고 모인 우리들, 기도의 손을 놓지 않도록 간절히 청하며 오늘도 15명이 한 송이씩 엮은 장미화환을 성모님께 씌워드리고 있다.

민정아 루시아 수영성당

부산가톨릭의료원 모바일 홈페이지 개설



최근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과 부산성모병원
 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
 에서 최적화된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환우
 들은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진료 예약, 진료 일정, 예
 약 조회 및 취소, 병원 소식 등 다 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몰운대성당,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포럼



몰운대성당(주임 : 문성호 신부, 회장 : 김동순 그레고리오)은 지난 3월 17일(일) 장편소설 『난주』 저자 김소운과 함께하는 독서 포럼을 개최했다. 독서 포럼은 작가의 특강, 질의 응답, 조별 나눔, 총평 및 나눔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병영성당, '가온누리' 노인대학 개교

병영성당(주임 : 안형준 신부, 회장 : 신동주 라파엘)은 노인사목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3일(수) '가온누리대학' (학장 : 김수봉 보나벤투라)을 개교하고, 60, 70대 새내기 43명의 입학식을 거행했다.

우리 교구는 현재 76개 본당에서 노인대학 (성경공부반 포함)을 운

영하고 있으며, 본당 어르신들에게 성경, 교양, 건강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천성당, 장학금 수여식



남천성당(주임 : 예정출 신부, 회장 : 엄정일 요셉)은 지난 3월 17일(일) 교중미사 중에 청소년 5명, 청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성당은 본당 활동에 열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청년 신자들을 추천받아, 주기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석포성당, 틴스타 교육 수료



석포성당(주임 : 김종남 신부, 회장 : 이병열 라우렌시오)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 한나회(복사단 지원

모임) 회원 6명이 '한국틴스타' 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지난 3월 10일(일) 미사 중에 수료증 수여식을 가졌다. 틴스타 교육은 주님의 주신 몸의 소중함과 생명사랑, 인간존중을 목적으로 하는 성교육의 일환이며, 앞으로 수료한 신자들은 각자의 소임지에서 초,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리놀병원(병원장 : 황선출 세례자요한) 직원들은 지난 3월 16

일(토) 당감동 소재 요셉의 집(신빈회 운영) 무료 급식 현장에서 일손을 보탰다. 메리놀병원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신빈회에 200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월 1, 3주 토요일마다 직원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다.



3월 10일(일) 오룬대순교자성지
 주임 : 김상균 신부, 회장 : 안병현 베드로

가톨릭부산 주보 표지 및 콘텐츠 작품 모집

가톨릭부산 주보 제작에 신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주보 콘텐츠 작품을 모집합니다.

- ▶ **부 문** : 사진, 미술, 캘리그라피(서예 포함), 아이콘 혹은 삽화용 일러스트 작품
- ▶ **주 제** : 해당 주제에 맞게 목상할 수 있는 작품
 1. 2019년 전례력 각 주일 복음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별 복음 주제를 표현한 작품)
 2.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3.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4. 신자들의 전례, 성사 생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
 5. 주보 칼럼 제목 글씨 혹은 아이콘 일러스트

- 모 집** 3월 18일(월)~4월 28일(일)
- 자 격** 교구 신자 누구나
- 시 상** 부문별 1등 - 30만원, 입선작 다수 - 주보 게재 시 원고료
- 출 품 수** 5점 이내 (출품 시 -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
- 작품제출**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jubo@catb.kr)
- 발 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홍보국 업무에 활용됩니다.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3.29(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월평성당 / 문의: 629-8760(성소국)

부산가정성당 1주년 기념 <무료 혼인미사>

첫째 커플: 9.1(일) 15:00
둘째 커플: 9.1(일) 17:00
대상: 최소 한 측이 신자인 초혼 커플
지원 내용: 커플당 1,500여만원
신청 마감: 4.30(화) / 선정 발표: 5월 중 공지
지원 자격: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커플 / 문의: 441-3500

본 당

옥동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엑셀 가능, 대형 운전면허 소지한 자
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소속본당 주임신부 추천서(타 본당) / 마감: 4.14(일)
문의: (052)261-6011(옥동성당 사무실)

대연성당 부활 맞이 사순 9일기도 특강

· 3.25(월)~29(금) / 4.1(월)~4(목) 저녁미사 중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 28)
문의: 622-0635(대연성당 사무실)

기관·제 단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3.25(월) 19:30 · 야음성당 베네딕도홀
주제: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강사: 김준한 신부
문의: 465-9508 / 무료강의와 미사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3.28(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김기태 신부(군중후원회 담당)
울산: 4.12(금) 10:00 옥동성당
주례: 박종석 신부(해군중앙성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군중후원회 부활 위문품 발송 군인 등록

내용: 본당, 성명(세례명), 부대주소, 제대에정일, 부모연락처 / 마감: 3.27(수), 일반사병에 한함
문의: 751-3610, (052)274-3608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신심미사

· 3.25(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강현철 신부(광안성당 주임)
문의: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바오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 3.25(월) 10:30 · 바오로아람터
문의: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3.25(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644-1729, 0272

성음악사랑 후원회 회원을 위한 감사미사

· 3.27(수) 19:30 · 온천성당
주례: 임석수 신부 / 연주: 부산가톨릭합창단
문의: 010-3830-6467

노동사목 바자울미사(후원미사)

· 3.29(금) 19:00 / 문의: 441-6403
· 노동사목센터 교육실(사상성당 옆)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3.29(금) 10:00 / 세계오시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010-9312-4228(회장)

『부산가톨릭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

■ 모집부문 및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시, 시조, 동시 (5편 이상) 평론 (80매 내외, 1편 이상)
수필 (15매 내외, 2편 이상) 동화 (30매 내외, 2편 이상)
소설 (70매 내외, 1편 이상) 희곡 (80매 내외, 1편 이상)

■ 심사방법

- 심사위원은 문단의 권위있는 문필가로 함.
- 당선작은 『부산가톨릭문학』에 발표하고 신인상 수여.

■ 시상


- 부문별로 선정된 작품은 연말에 최종선발하여 시상함 (최우수상 500,000원, 우수상 300,000원, 장려상 100,000원)

■ 접수 마감 및 보낼 곳

여름호 접수마감: 4.10(수)
보낼 곳: ryang213@hanmail.net
문의: 010-7527-3328(편집장 오원랑)

본당순례 인증샷 이벤트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 본당순례 인증샷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순례 중인 성당에서 인증샷을 찍고, 교구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에서 '본당순례 검색')에 올려 주시면 매월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이전에 순례하셨던 사진도 가능합니다.

<p>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p> <h3>서울공예사</h3> <p>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김경자(모니카)</p>	<h3>분도목공소</h3> <p>제대, 강론대, 장래틀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p>	<h3>나가사키 성지순례 전문</h3> <p>① 카멜리아 3박 4일 479,000원~ ② 대마도 1박 2일 119,000원~</p> <p>253-5887 (주)발해투어 황 백 현(프란치스코)</p>	<h3>요양심터 트랙</h3> <p>트랙은 울산 배내골 해발 700m 고지에 위치 옥 영 순 (부블리아)</p> <p>010-7150-2237 <고로식물 팸니다></p>	<p>포장이사 전문업체</p> <h3>성신익스프레스</h3> <p>(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p> <p>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h3>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h3> <p>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임성엽, 광숙옥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p>	<p>○ 등금신청 상담에서 방문 돌봄까지 ○ 가족요양보호사 상시 모집 ○ 국비지원(85%~100%)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민병덕 (사도요한) 010-7448-7858 가인방문요양센터</p>	<p>24시간 응급의료 / 전립선, 요실금</p> <h3>SNU서울비뇨의학과</h3> <p>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p> <p>714-1725 서울대출신원장 박정민(카브리엘)</p>	<p>건설현장의 꽃</p> <h3>조은 이동타워 크레인</h3> <p>독일 LIEBHERR. MK80.88.100.110. 등 MK80-마스타30M 짚42M엔드 1.7톤작업 MK100-마스타35M 짚52M엔드 1.6톤작업 MK110-마스타35M 짚52M엔드 1.8톤작업</p> <p>장비임대, 현장담사(상담현영) 1833-6368, 010-3831-2403 심현진 (프란치스코)</p>	<p>- 전국 토지, 상가건물 -</p> <h3>부동산 매매</h3> <p>대표 김창환 (심플리치오)</p> <p>010-3874-1627 전포동 한신맨 1204호</p>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청소년, 젊은이 기도회
- 3.25(월) 19:30 전포성당
- 3.27(수) 20:00 울산대리구청 별관
- 3.31(일) 13:30 전포성당
- 수요치유기도회
- 3.27(수) 12:50~16:00
- 강사: 이영민 신부(삼위일체수도회)
- 11:00 동래역 3번 출구, 11:40 양산 전철역 4번 출구 / 11:20 부산역 4번 출구
- 제19차 무료 치유 대피정
- 3.29(금) 22:00~30(토) 16:00
- 강사: 장훈철 신부님, 두현자 자매
- 철야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455차 교구 성령목상회(일반)
- 4.5(금) 19:30~7(일) 18:30
- 회비: 15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지하도 입구
- 2019년 성령체신 부산대회
- 4.27(토) 09:00~18:00 부산가톨릭대학교
- 강사: 임은철 신부(제주교구), 진홍장 회장(삼성산전 회장)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사무실 6층 (16평, 20평, 36평)
문의: 462-1870(가톨릭센터 행정실)

제25기 인문고전대학 개강

개강: 4.9(화) 19:00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매주 화, 수, 목 강의(8주간)
화: E.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부현 교수)
수: 소설과 영화로 우리시대 이해하기(박선정 교수)
목: 동서양 명화의 비밀 코드(이성희 교수)
접수: 3.25(월)~4.8(월) 전화접수, 4.9(화)~11(목)
현장접수 / 문의: 510-0554(인문학연구소)

가톨릭서예인회 3월 정기모임

· 3.25(월) 18:30 · 남대문(서면 영광도서 앞)
문의: 010-8542-3559(회장) ※회원 수시 모집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교구평협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3.30(토) 09:00(11:00 미사)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김범우교육관 식사 예약
(055-356 7030) / 문의: 622-5588(평협)

교육·모집·기타

영원한도움의성모 9일기도와 미사

· 3.26(화) 14:00 · 서면성당
주례: 구숙주회 신부/ 교리 강의, 미사
문의: 010-8298-1312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3.30(토) 11:00 · 양산 무아의 집
(범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김해 부원역
09:20 경유) / 문의: 010-3355-4997

예수성심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신심미사

· 3.29(금) 13:30~16:30 · 성분도 은혜의 집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강의, 미사)
문의: (02)379-8091(예수성심전교수도회)

향심기도 하루피정

· 3.31(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왕영수 신부 / 신청: 3.27(수)까지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문의: (052)239-1249, 010-5488-1239

장애인의 날 기념 <4,200원의 행복>

장애인 일기회복 삼계탕 후원(경남 530-21-0470
091 울산장애인복지관) / 문의: (052)248-5911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청소년, 성인, 부부(비신자 포함)
내용: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 1급)
상담: 화~토 10:00~17:00 / 문의: 010-4539-3101

꽃동네 사순 침묵 피정

· 4.12(금)~14(일) 개인 독방 피정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피정의집
피정지도: 꽃동네 수도사제
특별강사: 오웅진 신부 / 피정비: 12만원
문의: (043)879-8500, 010-8880-8286

청년 파스가 성삼일 전례피정

· 4.19(금)~21(일) / 신청마감: 4.5(금)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경북 왜관)
대상: 고1~40세 이하 미혼 남녀(선착순 20명)
피정비: 학생 4만원, 성인 5만원
문의: 010-8353-232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 5.25(토) 14:00~26(일) 17:00 · 아룬의 집
회비: 1부부 15만원(비신자, 냉담자도 환영)
입금: 우리은행 1002-457-453781 한철호
(입금 후 연락요)
준비물: 미사, 수건, 치약, 편한 신발, 개인컵
문의: 010-4204-1522, (02)777-1773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4.24(수)~5.7(화) ·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남부 일주,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247-5858, 010-3837-6434 / 부산 출발

프란치스코와 함께 청년 해외성지순례

· 8.9(금)~19(일)
· 로마-피렌체-아씨시 외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5313-0241(전베로니카 수녀)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5234호(우 04535)
문의: (02)2274-1843~4 / 홈페이지: cdcc.co.kr
요금: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및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ac.or.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살레시오수도회	월 1회 (일) 13:00~16:00	창원 젊음의집	010-3894-1332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스페인 영성과 문화 (지도교수: 한인규 신부)
스페인 문화와 역사에 스며 있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특징을 살펴 봅니다. 영성신학 전문가와 함께하는 본 과정은 기도로 시작하여 강복으로 마칩니다. 4/3~5/22 수 10:30~12:00 <총8주>
문의: 510-0951-3, edu.cup.ac.kr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정형외과 김종업 과장 부임

관절염, 슬관절, 족부족관절, 고관절, 견관절, 스포츠 손상,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외상 및 골절, 골다공증
문의: 461-2505(정형외과)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명목한 세상

사진, 감성에 디자인하다.

사진교실 초급반 개강

개강: 4.11(목) 매주 화요일 19:00~21:00 (15회 과정)
수강료: 20만원
강사: 최경현 (사진작가)
접수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라파엘여행사</p> <p>5/7, 6/4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89만원 3/18, 4/22 성모님발행 13일 389만원 3/19, 5/12, 6/23 나가사키 949천원 3/17, 4/7, 5/5 다낭 5일 129만원</p> <p>성지순례 (02)778-8565</p>	<p>해상, 물류, 보험, 기업법무, 영문계약, 건설 부동산, 각종 민, 형사 및 가사 변호사 직접상담</p> <p>법무법인 인화국제</p> <p>변호사: 이정민(베로니카) 503-0037, fax 503-8998 Email: lawyer.jmlee@gmail.com 부산 연제구 법원대로 15번길 6 은허빌딩 2층</p>	<p>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p> <p>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치료,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유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령대로 229, 수인역 7번 출구 앞 2층</p>	<p>잇몸치료/보철틀니/임플란트 박진철치과의원</p> <p>원장: 박진철(토마스) 552-2811 동래시장 횡단보도 앞 2층</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원</p> <p>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전문의 7명: 박인호(투가), 한경문, 최평락, 유찬희, 남화성, 서수홍(리파역)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박정미 하년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백천피부과의원</p> <p>(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인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p>	<p>동래광안참사랑요양병원</p> <p>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후수(아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치매나 노환으로 아픈 어르신에게서 요양보호사가 정상껏 돌봐드립니다</p> <p>한울타리재가노인복지센터</p> <p>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상담 문의: 257-8120, 010-9832-1211 장기요양 1-5등급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p>	<p>쿠르즈 콜럼버스(쥬투어)콜럼버스</p> <p>한일 쿠르즈 6일 113만원부터 알래스카 쿠르즈 10일 369만원부터 지중해 쿠르즈 369만원부터</p> <p>부산 유일 쿠르즈여행 전문여행사 네이버에 쿠르즈 콜럼버스 검색</p>	<p>SM수맥흡심대</p> <p>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신문광고 중 주보 지참 교우 우대 1588-5335</p>